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

宗釋(全東赫)

佛教學科 教授

한국불교의 전체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려불교이다. 고려불교는 신라불교의 맥과 전통 내지는 사상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조선불교를 낳은 산파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잘 고려불교를 秘密佛敎 儀禮佛敎 祈禱佛敎로 평가를 한다. 무엇이 고려불교를 이렇게 성격 짓게 만들었을까? 나는 그것을 密敎라 생각한다. 곧 밀교야 말로 고려불교의 핵심으로서 고려불교를 규명하는 열쇠(key)로서의 위상을 가짐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폐불기 조선조 500년이란 동면의 역사를 지탱케 해준 등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밀교의 연구는 한국불교의 실상을 규명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것이다.

본고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은 그 논제가 말해주듯, 고려불교사 속에서 밀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과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먼저 500년이란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술해 놓은 『高麗史』를 분석하여 보았다. 곧 불교국가인 고려의 역사 속에서의 불교의 위상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불교중심의 역사 속에서 밀교는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말하자면 『高麗史』에 면면히 이어지는 각종 道場佛事에 대한 분석과 이와 밀교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고려불교를 말하는데 있어 고려대장경의 彫造佛事는 절대로 빼 놓을 수 없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고려대장경불사가 어떠한 연유로 시작되었으며 또 그 속에 수장되어있는 경전 가운데 密敎經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그러한 밀교 경전들은 『高麗史』에 散在해 있는 각종 道場佛事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등등을 살펴보았다. 셋째는 고려를 개국한 太祖 王建의 건국이념과 불교중시정책을 통해 그와 밀교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았다. 곧 <훈요십조>와 『高麗史』 太祖條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왕건과 그의 밀교보호책을 살펴보았다. 넷째로는 고려를 불교국가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道詵國師와 밀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말하자면 도선이란 스님은 선승인지 도침승인지 아니면 密敎禪僧인지, 그리고 만일 그가 밀교와 관계 깊은 밀교선승이었다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밀교적 行步나 철학, 소위 山川禱補思想은 밀교사상 가운데 어떠한 사상에 근원을 둔 사상인지 등을 그의 行蹟 내지 碑文과 事迹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

宗釋(全東赫)
佛教學科 教授

I. 서론

II. 고려불교사에 있어서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

1. 『高麗史』와 그것의 밀교적 성격
2. 『고려대장경』의 雕造佛事와 밀교의 호국사상
3. 태조왕건의 건국이념과 밀교보호정책
4. 道詵國師와 密敎의 曼荼羅思想

III. 결론

I. 서론

고려불교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祈福攘災와 密敎儀禮와 鎮護國家의 특성을 가진 불교라 할 수 있다.¹⁾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사서인 『高麗史』는 護國 및 消災에 관한 密敎道場佛事의 기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려불교를 護國과 消災의 불교로 특징 지우게 한 根底에는 후삼국통일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완수하고 고려라고 하는 통일국가를 건립하려 했던 太祖王建의 佛心과 건국 이후 끊임없이 고려를 침공해 온 遼·宋·元

1) 鎌田茂雄, 1987, 『朝鮮佛敎史』 서문 및 25항, 125항, 동경대학출판회
김영태, 1986, 『한국종파사 이해』,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등의 隣國에 고통을 당했던 역대 제왕들의 護國과 護法理念, 말하자면 이와 같은 課業과 災難을 佛法에 의해 완수하고 拔除시키려고 했던 왕건을 비롯한 고려 역대 왕의 信仰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護國即是護法>이라고 하는 國家理念이 굳건히 다져지게 된 데에는 護國과 祈福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密敎思想이 받쳐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고려는 建國 初부터 祈福攘災와 鎮護國家를 기본이념으로 삼는 밀교를 국가의 庇護下에 두면서 護法即是護國이라고 하는 國家佛敎의 실현에 매진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태조왕건은 한반도 통일 이후 신라의 정치이념으로 민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불교사상을 고려의 정치이념으로 도입하여 나라와 주인이 바뀌어 不安해하고 있던 민중들의 동요를 최소화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불교사상 가운데 특별히 고려의 통일완수에 기여가 많았던 밀교종파 神印宗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던 것이다. 곧 『三國遺事』에는

내가 창업 당시 해적의 來侵이 있어 安惠와 朗融의 후예인 廣學과 大緣 등의 두 大德을 청해 물리쳤으니 이들 모두는 龍樹의 法을 이어 받은 密法 九祖인 明朗의 후손들이다. 나 태조는 이들 두 대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賢聖寺를 창건하여 神印宗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니라.²⁾

하여 태조가 고려의 수도인 開城에 신인종의 本山인 賢聖寺를 창건(936년)하고³⁾ 신인종의 종조인 明朗法師(612~682)를 龍樹菩薩을 初祖로 하는 金·胎兩部 正純密敎付法の 第 9 祖로⁴⁾ 인정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신인종 종조인 명랑법사를 중국의 神異軍國

2) 我太祖創業之時亦有海賊來擾 乃請安惠朗融之裔廣學大緣等二大德作法攘鎮 皆(明)朗之傳系也故并師而上至龍樹爲九祖 又太祖創建現聖寺爲一宗根底焉(大正藏49, 1011中)

3) 신인종 본사 현성사는 고려조의 神異軍國護國의 근본도량이었다. 특히 원 지배하인 고종·원종·충렬왕 대에 왕이 이 곳에 행차한 회수는 60회 곧, 고종(36회), 원종(11회), 충렬왕(13회)으로서 『고려사』에 기록된 전체 행차 회수 69회의 90%에 해당된다. 왜 이 시기에 이렇듯 빈번하게 현성사에 행차했을까. 여기에는 『고려사』 원종 14년 4월조의 “幸現聖寺集五敎兩宗僧徒 設道場於男山宮以祈平賊”이란 기사 내용이 알려주듯, 이 시기에는 현성사가 원나라(賊)를 물리치는 근본도량이었기 때문이었다.(拙稿, 1993,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1)」-신인종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2, 중앙승가대 참조)

4) 679년 開宗을 하며 신라불교 무대에 뛰어난 신인종 승려들은 大日如來-金剛薩埵-龍猛-龍智-金剛智-善無畏-不空-惠果-明朗이라 하여 자기들의 宗祖인 명랑을 密敎付法の 第 9祖로 위치시켜 신인종이 중국의 純密, 말하자면 신이군국밀교의 대가인 不空三藏의 밀교를 이어받은 정통밀교 종단임을 내외에 주지시켰다. 이것은 일본 진언종의 종조인 空海가 대일여래-금강살타-용맹-용자-금강지-불공-혜과-공해라 하여 본인 스스로를 密敎付法の 第 8祖로 위치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佛敎家로 유명한 密敎의 大家 不空三藏)의 손 제자로 명시했다는 상기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밀교종파 신인종에 대한 왕건의 의지, 말하자면 신인종을 고려를 鎮護하는 신이군국종파로서 인정하겠다는 왕건의 신념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려불교를 논함에 있어 앞의 기사와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종파가 또 하나의 밀교종파인 總持宗이다. 현존자료만으로는 이들 두 밀교종파인 신인종과 총지종의 종파적 성격, 말하자면 그들의 宗旨가 무엇이며 이들 두 종파가 갖는 특징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으나, 다만 현존하는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신인종은 護國을 그리고 총지종은 祈福消災를 종지로 삼은 종파였으리라 생각된다.

곧 이들 신인종과 총지종이 갖는 宗旨나 특징은 한국밀교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 절대로 빼 놓을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앞으로 더욱 연구 고찰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인종은 그 이름 그대로 神印(Mudra) 말하자면 身密中心의 밀교로서 신인종 본사 賢聖(現聖)寺에서 실시되었던 도량불사의 실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護國的 性格이 강한 종파였으며, 총지종은 陀羅尼(Dharani) 말하자면 口密中心의 밀교로서 『陀羅尼集經』·『不空羅索神變眞言經』·『佛頂尊勝陀羅尼經』 등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祈福과 消災的 性格이 강한 밀교 종파로서 요나라 밀교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⁶⁾

5) 小野塚幾澄, 「不空의密敎について」, 『대정대학연구기요』제65집

長部和雄, 『唐代密敎史雜考』(神戸商科大學, 1971)

6) 신인종의 개종(679년)에 십여 년 늦어 開宗원(692년) 총지종은 善無畏와 金剛智 兩 密敎三藏의 入唐前 말하자면 중국에 正純密敎思想이 전래되기 이전 唐에서 聖觀音法의 大家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智通의 제자인 惠通(640~710)에 의해 개종되었으며, 이후 明曉→惠日 등으로 付囑되었을 것이 확실함으로 신라시대의 총지종은 聖觀音法을 중심으로 하는 雜密에서 金·胎 兩部의 純密로 점차 발전 전개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처럼 純密展開 이후 곧 바로 신라말 고려초라고 하는 과도기적 시대상황과 호국과 消災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高麗朝를 접하게 되어 대승불교의 진수를 이어받은 正純密敎로 발전하기 보다는 陀羅尼의 神秘性을 중시하는 기복과 소재 중심의 밀교 종파로 후퇴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곧 총지종이란 종파명이나 혜통이란 이름은 모두가 지통스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혜통스님의 善無畏三藏으로부터의 부족설은 태장계 밀법의 대가인 선무외삼장으로부터 직접 맥을 이어받은 玄超와 惠日 등의 총지종 승려들이 꾸민 허위조작으로, 이러한 조작은 총지종이 선무외 계통의 밀교를 계승한 정통종파임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요조불교는 속장경의 간행과 더불어 고려불교계에 수용되게 되는데, 이때 요조밀교를 고려불교계에 전래시킨 주도자는 태각국사 義天이었다. 곧 의천이 고려조 총지종 본사인 총지사에서 세상을 마친 것은 밀교종파 총지종파 의천과의 깊은 관계 내지는 요조밀교의 전래자로서의 의천의 위치를 입증해주는 분명한 근거가 될 것이다.

拙稿, 상계논문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1)」

拙稿, 1995,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2)」-총지종의 형성과 전개-, 『논문집』4, 중앙승가대학교

II. 고려불교사에 있어서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

본고는 高麗朝라고 하는 시대상황 하에서 전개된 高麗密敎, 곧 鎮護國家와 祈福攘災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고려불교 속에서 호국적 성격이 강한 신인종과 祈福과 消災의 성격이 강한 총지종이 가졌던 위상, 말하자면 고려불교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인·총지 두 밀교종파의 위상을 염두에 두면서

1)『高麗史』와 그것의 밀교적 성향, 2)『高麗大藏經』의 雕造佛事와 밀교의 호국사상, 3)태조 왕건의 건국이념과 밀교 보호정책, 4)道誥國師와 밀교의 만다라사상 등을 간략히 고찰하여 고려불교의 개관 내지는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高麗史』와 그것의 밀교적 성격

고려시대의 正史 『고려사』에는 매월 아니 매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각종 道場佛事가 그것도 역대 제왕들의 참석하에 개설되었음이 기록되고 있다.

이들 佛事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고려불교사상의 근본이념인 護國과 消災를 위한 密敎道場佛事였다.

왜냐하면 『고려사』 『世家編』에는 仁王百高座道場(124회)·佛頂尊勝道場(40회)·功德天道場(13회)·消災道場(147회)·文豆婁道場(5회)·四天王道場(2회)·無能勝道場(8회)·摩利支天道場(9회)·金光明經道場(27회)·靈寶道場(11회)·祈攘法席(7회)·般若道場(20회)·帝釋道場(23회)·大日王道場(1회)·眞言法席(1회)·祈雨·止風·龍王道場(23회)·閻滿德加威努王神呪道場(1회)·阿吒波拘神道場(1회)·孔雀明王道場(1회)·藥師道場(3회)·北帝天兵護國道場(1회)·鎮兵法席(4회)·天兵神衆道場(20회)·文殊道場(10회)·灌頂道場(9회) 등 호국과 소재를 위한 密敎道場法會가 총 25종 511회에 걸쳐서 개설되었음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만일 여기에 「設齋」·「設道場」또는 「每年常例」등의 기사까지 포함시킨다면 고려조에 개설된 호국 및 소재도량은 1000회를 넘게 되어 고려불교를 호국불교 내지는 기복양재의 국가불교라 정의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또 『고려사』에는 仁宗·康宗·元宗·忠烈王·忠宣王 등의 즉위식이 밀교의 灌頂儀式으로 행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사들은 고려조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려 주는 충

拙稿, 1999, 「고려시대의 밀교경전 전래 및 雕造考」, 『鏡海法印 신정오박사 회갑기념논문』
7) 서울길, 「고려의 호국법회와 도량」, 『불교학보』 제14집, 동국대학교

분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라 할 것이다.

2. 『고려대장경』의 雕造佛事와 밀교의 호국사상

고려조에는 전 후 2회에 걸친 『대장경』의 雕造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뒤이어 『속장경』의 조조까지 이루어 지는 등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조하고 간행하였다.

곧 대장경 조조불사는 이러한 ‘護法卽是護國’이라는 高麗朝의 國是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 海印寺에 소장되어 있는 高宗代에 조조된 고려대장경에는 총 317부의 잡부밀교경전과 善無畏(5부 17권), 金剛智(8부 11권), 不空(109부 152권) 등 唐代의 純密家에 의해 譯出된 밀교경전이 122부 180권 그리고 天息災(19부 58권), 法天(944부 73권), 法賢(56부 91권), 施護(115부 258권) 등 宋代의 밀교가에 의해 譯出된 밀교경전이 무려 234부 480권이나 수재되어 있으며, 또 뒤이어 대각국사 의천(1055~1101)에 의해 조조된 續藏經佛事에도 『大日經』·『消災經』 등 11經 2論에 대한 密敎經疏가 무려 77부 266권이나 수재되어 있다.⁸⁾ 모두가 護國과 消災를 강력히 주창하고 있는 밀교경전의 조조와 간행에 의해 국가를 鎮護하려고 했던 고려조의 佛心, 이른바 밀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이 깃든 대작불사로서 앞에서 거론한 각종 밀교도량법회는 바로 이들 밀교경전과 의궤에 의거하여 開壇·建壇 내지는 回向되었을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고려조가 밀교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라 하겠다.

또 고려조는 이들 고려대장경과 속장경 조조불사 이외에 『金書密敎大藏經』도 간행했다. 곧 이제현이 쓴 「금서밀교대장서」에 의하면,

佛書가 중국에 들어와 무려 천만 권이나 역경되었다. 그러나 다라니는 중국에서조차 번역되지 못하였다. 옛 선학들이 다라니의 쇠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편찬하여 <密敎大藏>이라 이름하니 무려 90권이나 되었다. 90권이란 세상에 유포된 천만 권의 근거이다. 주상전하(忠肅王)께서 佛典 특히 밀교에 특별한 신심을 내 보이시어 국가의 진귀한 탕재를 내리시어 구분을 다시 교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못했던 40권까지 새로 구해 도합 130 권으로 만들어 이들을 工書에 명해 모두 金書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金書密敎大藏經>이다.

8) 拙稿, 상계 논문 「고려시대의 밀교경전 전래 및 雕造考」

<금서밀교대장경>이야말로 眞法寶가 아닐 수 없다.⁹⁾

고 하여, 충숙왕이 1328년(충숙왕 15년) 90권의 구분 밀교대장경에 중수본 40권을 추가시켜 이들을 金書로 다시 써 130권의 새로운 「금서밀교대장경」을 간행했음을 알리고 있다. 90권의 구분 밀교대장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발원되고 사경되었는지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1275년(충렬왕원년) 충렬왕의 발원에 의해 銀字로 寫經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不空羅索神變眞言經』(菩提流志譯 대장장 No.1092 30권)을 통해 추측해 볼 때¹⁰⁾ 충렬왕이나 또는 그 이전인 고종왕 때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아무튼 고려불교계에서 밀교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과 역대왕들이 밀교를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단적으로 알려 주는 좋은 자료임에 틀림없다.

3. 태조왕건의 건국이념과 밀교보호정책

고려조의 밀교 성행을 논하는 데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태조왕건의 밀교 보호정책이다. 곧 태조는 건국 초부터 신라의 정치이념이기도 했던 불교사상을 고려의 정치이념에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대업을 뒷바침 하는 호위력, 말하자면 호국불교로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다시 말해 태조왕건은 『訓要十條』¹¹⁾라고 하는 후대제왕들이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10가지 敎則을 제정해 놓았는데, 왕건은 제1조부터 고려가 불교국가임을 명시해 놓고 뒤이은 제2조와 제 6조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곧

제1조, 국가대업은 반드시 불교의 호위력에 달려 있다. 그런 까닭에 禪敎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수행케 하고 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제2조, 모든 사원은 승 道誥의 말을 따를 것이며 함부로 절을 지어 地德의 손상이 없게 하라.

9) 佛之書入中國。譯而爲經數千萬卷。所謂陀羅尼者中國之所不能譯也。(略)昔之人知其若此衰而纂之。成九十卷名之曰密敎大藏刊行于世。則茲九十卷者數千萬卷之根底也。我主上殿下萬機之暇留神乎釋典。其於密敎信之允切。發內帑之珍泥金以書之。(略)於是以前本校于諸經或乙或竄而是正之。又增求其所未收得四十卷與舊合一百三十卷。令工書者分部而寫之。(略)眞法寶也(『東文選』 권85)

10) 『不空羅索神變眞言經』은 현재 권 13만 남아 있으며 經의 跋文에 “至元十二年乙亥歲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이라 기록되어 있다.(『高麗寫經展觀目錄』, 동국대학교, 1962)

11)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조

제6조, 나의 염원은 燃燈과 八關에 있다. 연등이란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며 팔관이란 五嶽의 名山과 大川의 龍神을 섬기는 일이다.

라 하는 기사가 그것인데 이것을 정리하면

- ① 고려국의 흥망성쇠는 부처님의 호위력 여하에 달려 있다.
- ② 부처님의 호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 사찰을 창건해야만 한다.
- ③ 현존하는 전국의 사찰은 그 모두가 密敎禪僧인 道詵國師가 그의 寺塔裨補法에 의해 세워 놓은 사찰이다.
- ④ 따라서 이들 사찰 이외에 몇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 ⑤ 八關齋나 燃燈會는 부처님과 그의 권속인 八部神衆을 모시고 섬기기 위한 佛事이므로 매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왕건의 정책 내지 인생관과 세계관이 담겨 있는 『훈요십조』를 통해 왕건을 평가해 볼 때, 왕건은 ‘호법즉서호국’이라고 하는 鎮護國家 佛敎思想을 그의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또한 그는 이러한 그의 통치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팔관제와 연등회를 국가차원에서 設行하였으며,¹²⁾ 또 밀교선승인 도선스님을 국사로 모시고 그가 주창한 寺塔裨補宅地法에 의해 전국의 사찰을 건립하고 정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고려조의 국가시책으로서 역대제왕들에게 남긴 『훈요십조』는 왕건과 불교, 다시 말하면 불교에 대한 왕건의 신앙심과 밀교선승 도선의 사탑비보설에 대한 그의 믿음과 철학이 얼마나 깊고 철저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고려불교를 논함에 있어 밀교선봉자 왕건을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왕건이 재위기간 중 행한 여러 가지 불교적 치적들을 밀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즉위 2년째인 919년 왕건은 수도인 개성에 法王寺와 內帝釋院 등 10개의 사찰을 건립하고¹³⁾ 법왕사를 수 사찰로 지정하여 法王에 해당되는 밀교의 大日如來를 主尊佛로 안치하고, 법왕사의 연례행사로 매년 팔관제를 개설하였다.¹⁴⁾ 또 태조 7년(924)에는 九曜堂과 神衆堂 그리고 外帝釋院을 건립하여 제석신앙에 대한 왕건의 깊은 신앙심을 엿보게 하고 있으나 八部神衆과 九曜信仰을 포함하는 이러한 제석천왕 신앙은 삼라만상의 일체 존재가 모두 法

12) 始設八關會 御儀鳳樓觀之 歲以爲常(『고려사』 태조 원년 11월조)

13) 三月創法王·王輪等十寺于都內(『고려사』 태조 2년조) 이때 창건된 開京十刹은 法王寺·慈雲寺·王輪寺·內帝釋院·舍那寺·天禪院·新興寺·文殊寺·圓通寺·地藏寺이다.

14) 則中揭毘盧·文殊·普賢會圖新繪者也(『陽村集』 권14, 『法王寺祖師堂記』. 팔관회는 태조 원년 11월에 처음 개설된 이래 매년 밀교 사찰인 법왕사에서 행해졌다. 고려조의 팔관회는 제석천의 권속중인 천령·오악·대천 등의 팔부신중에 공양을 드리는 제사의식이였다.

身 毘盧遮那佛의 化現이라는 밀교철학에 근거를 둔 신앙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제석도량」이 역대제왕을 통해 23회 개설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國是인 『훈요십조』에 대한 경외와 태조 왕건이 몸소 실천했던 제석신앙에 대한 역대제왕들의 굳건한 信行의 결과라 사료된다. 또 태조는 19년(936)에 밀교종파 신인종의 고려본산으로 개성에 현성사를 창건하였는데, 이는 『三國遺事』 제6 「神編」의

태조가 고려조를 창업할 때 해적의 來侵이 있었는데 廣學·大緣 등 神印宗 승려들이 밀교의 작법을 통해 이들을 물리쳐 진압시켰다. 이들은 신인종 종조인 明朗法師의 후예들로서 태조는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賢聖寺를 창건하였다¹⁵⁾

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인종의 고려본산 현성사는 다름아닌 밀교를 호국의 종파로서 인식한 태조왕건의 굳건한 믿음에서 건립된 사찰이었던 것이다.

이상 우리는 태조왕건의 밀교선승 道詵國師의 중시, 法王寺를 비롯한 内外의 帝釋院 건립과 연례행사로서의 八關齋와 제석도량 개설, 그리고 밀교의 신인종을 호국종파로서 인정하고 신인종의 고려조 본산인 현성사를 창건한 기사 등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고려 태조왕건이 護國을 宗旨로 삼는 밀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했음을 의미하는 것임과 나아가서 고려의 건국자인 태조 왕건의 이와 같은 밀교 중시사상은 고려불교를 호국과 소재의 불교로 방향 짓게 하는 근원적 계기가 되었음도 아울러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4. 道詵國師와 密敎의 曼荼羅思想

고려불교를 밀교적 불교로 방향 짓게 한 장본인은 다름아닌 密敎禪僧 道詵國師이다. 까닭 인즉, 신라 말 禪門九山の 일파인 桐裏山의 開山祖 惠徹禪師(784~861)의 제자인 밀교 선승 도선국사(825~898)야말로 신라의 국운과 함께 점차 침체되고 있던 통일신라 말기의 불교계에 새로운 사상인 密敎禪을 수용하여 꺼져만 가던 당시의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불어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삼국의 새 주인공이 된 고려조를 불교국가로 부흥케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먼저 도선이 활약하고 있던 9세기경의 신라불교계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 본 후 뒤이어 도선이 어떻게 해서 밀교선을 주창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당시의 신라불교계에는 원효와 의상의 눈부신 활약 이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던 華嚴思想과 신인·총지 양 밀교

15) 註2) 참조 大正藏49, 1011中

종파에 의해 수용된 善無畏·不空三藏 등의 신불교 正純密教思想이 민중 깊이 신앙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새롭게 신라에 전래된 새로운 불교사상이 다름아닌 禪思想이었다. 다시 말해 화엄과 밀교가 성행하고 또한 이들 두 종파가 상호 교섭하며 융통을 꾀하던 당시의 불교계에 선사상이 새롭게 전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전래된 신불교 禪思想(馬祖 道一의 혈맥인 洪住宗의 계통이었음)은 처음에는 이미 민중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화엄 및 밀교사상에 의해 반발당하고 거부당했지만,¹⁶⁾ 新羅下代의 새로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한 傍系 金氏 王室(후에 37대 宣德王이 된 金良相의 家系)과 지방호족세력의 도움과 보호 그리고 기존의 불교사상과의 대치적 자세가 아닌 조화와 융화로써 상호의 융합을 꾀한 선종 자체의 노력의 결과로 점차 신라불교계에 수용되고 정착하게 된다.¹⁷⁾ 곧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唐留學을 마치고 귀국한 도선의 師僧 惠徹禪師는 禪과 敎의 융합과 조화를 모색하면서 桐裏山을 중심으로 선사상의 홍포에 전념했다. 곧 文聖王의 질의에 대한 답신인 혜철선사의 『利國之要事若干條』¹⁸⁾의 기사 내용이나 桐裏山에 大安寺를 개산하면서 설파했던 宅地法에 대한 그의 철학과 사상,¹⁹⁾ 또는 唐土에서 祈雨祭를 드리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의 神驗記事²⁰⁾ 등은 밀교에 대한 그의 해박함 내지는 당시 중국선종계의 풍조이기도 했던 禪密 交涉²¹⁾의 계승자로서 융통과 조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禪密交涉時期에 불교계에 등장한 분이 바로 道誥스님인 것이다. 도선은 사승인 혜철이 지향하던 선밀융합사상을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密敎를 중심으로 하는 禪, 말하자면 密敎禪이란 새로운 장르의 불교를 꾀하기

16) 初道義大師者受心印於西堂 後歸我國說其禪理 時人推尙經敎與習觀存神之法 未臻無爲任運之宗以爲虛證不之崇重 有若達磨不遇梁武也 由時知時未集隱於山林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朝鮮金石總覽』 卷上, 62항)과 같이 당시의 불교계에는 經敎(화엄·유식)와 習觀存神之法(밀교) 등의 종파가 성행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주로 馬祖 道一의 禪(六祖 慧能의 南宗禪을 계승한 洪州宗系의 선종)을 배우고 신라에 돌아온 선승들은 禪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종파에 도전했지만 반발당하고 거부당했다.(고익진, 1984, 『新羅下代의 禪傳來』, 『한국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17) 김두진, 『朗慧와 그의 禪思想』, 『역사학보』 57집. 고익진 상기논문

18) 乃遣使問利國之要 禪師上封事若干條 皆時政之急務 王甚嘉焉 其裨益朝廷 王侯致禮亦不可勝言也 (『大安寺寂忍禪師照輪淨塔碑』, 『朝鮮金石總覽』 卷上, 119항)

19) 其桐裏山中有舍名曰大安寺也 (略)龍神呈之 瑞異蟲蛇遁其毒形 松暗雲深夏涼冬煖 其三韓勝地也 (상기 『朝鮮金石總覽』 卷上, 118항)

20) 遂於武州管内雙峰蘭若結夏時(略)師入靜室(略)祈小問甘澤微微而下(略)非人力之所救(상기 『朝鮮金石總覽』 卷上, 118항)

21) 田中良昭, 『初期禪宗と密敎』, 『敦煌 禪宗文獻の研究』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 p. 470

시작했던 것이다. 곧 도선은 밀교 특히 山川裨補思想을 그의 중심사상으로 삼고, 이것을 전국토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창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도선은 밀교경전이 설하는 건립만다라법을 응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만다라로 보고 전 국토 가운데 勝地를 택하여 그들 승지마다 사찰을 건립해야 국가와 민중이 평안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다고 하는 소위 산천비보사상을 주창했던 것이다.

곧 『高麗國師道誥傳』의

삼한의 산수 가운데는 3,800군데의 승지가 있으니 이 승지마다 마다에 점을 찍어야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이 급한 병을 당할 때 혈과 맥을 찾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바로 쾌차해 지는 것처럼 산천의 병 또한 이와 같은 것으로서 내가 승지로 정한 곳마다 사찰을 건립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세운다면 침이나 뜸이 주는 효능처럼 나라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것을 일컬어 裨補라 하는 것이다.²²⁾

란 기사 내용과 또 『白雲山內院寺事蹟』의

산천 가운데에는 병들고 쇠한 곳이 있으나 모자란 곳에는 사찰을 세워 모자람을 보충하고 지나친 곳은 부처님을 모셔 지나침을 억눌러야 된다. 또 앞이 너무 트여 달아 나려고 하는 곳은 탑을 세워 이를 머물게 하고 뒤로 등지고 돌아서 가려는 곳은 幢竿을 세워 머물게 한다면 도적과 전쟁을 막고 선과 길함을 드높이게 되어 자연히 천하가 태평해지고 불법 또한 殊勝해 지는 것이다.²³⁾

란 기사내용이 바로 도선이 주창한 山川裨補思想으로서 이러한 사상은 다음아닌 鎮護國家와 現世利益을 위해 『蘇悉地經』 및 『蘇婆呼童子經』 등의 밀교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建立曼荼羅宅地法 말하자면 一切悉地決定成就法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²⁴⁾ 따라서 『고려사』의

22) 三韓山水圖中擇三千八百區件件落点曰. 若有病急部尋血脈或針或灸則即病愈. 山川之病亦然今我落点處或建寺立佛立塔立浮圖. 則如人之鍼灸名曰裨補也(『朝鮮寺刹史料』 卷下 377항)

23) 於山川痛痒之地而缺者以寺補之 過者以佛抑之 走者以塔止之 背者以幢招之 賊者防之 爭者禁之 善者樹之 吉者揚之 則天下太平法輪自轉(상기 『朝鮮寺刹史料』 卷上 19항)

24) 謹案蘇悉地蘇婆呼玉四耶大毘盧遮那成佛經等略集揀擇地建立曼荼羅法(略) 如是之人方可建立諸曼荼羅利益自他求一切悉地決定成就(『建立曼荼羅及揀擇地法』, 大正藏18, 926上)

신라말 僧道誦이 唐에 들어가 一行和尚의 地理法을 배우고 돌아와 秘記를 지어 전했다.²⁵⁾

고 하는 기사는 도선의 입당 사실을 확인시켜 줄 확실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선 스님(825~898)의 생존년대가 일행화상(673~727)의 생존년대보다 150여 년이나 늦어 터무니 없는 허위설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허위설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유포된 것일까? 그것은 도선의 비보사상을 권위시켜 보려는 당시 불교계의 움직임 다시 말하면 도선을 『宿曜儀軌』·『七曜星辰別行法』·『北斗七星護摩法』·『梵天火羅九曜』·『藥師琉璃光如來消災除難念誦儀軌』 등의 저술을 남길 정도로 宿曜와 護摩 그리고 藥事法 관계의 권위자인 唐의 密敎僧 一行和尚²⁶⁾과 관계 지어 도선의 위상을 높여 보려던 도선계 승려들의 움직임 내지는 음모에서 생긴 낭설이었다. 곧 도선의 입당기사 내지 일행화상으로부터의 付囑說은 도선을 선승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밀교승 일행화상의 밀교 비법을 계승한 밀교승으로 둔갑시켜 보려는 도선계 승려들의 계획적인 의도에 의해 유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위야 어떠한 건립만다라택지법의 권위자 밀교승 일행화상의 부족제자로서 높이 평가받은 도선과 그가 주창한 비보사상은 고려태조 왕건의 시대로부터 고려조 500년 나아가서는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홍망성쇠의 척도로서 중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의 길흉화복의 비설로서까지 중시되어 사회전반에 유포되어 전해 내려 오고 있는 것이다. 곧 고려 仁宗代의 僧 妙請의 西京遷都의 亂이라든지 몽고 지배하의 三別抄의 亂 또는 恭愍王代의 僧 辛旽의 平壤遷都의 亂 등의 高麗朝에 있었던 사건들과 조선초의 개국과 建都에 따른 소동 그리고 현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풍수 등의 민간신앙은 모두가 도선²⁷⁾의 산천비보사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선의 사상을 밀교의 택지법이 아닌 山水와 地勢의 局面을 觀相하여 그 位相의 吉凶을 점치는, 말하자면 地理觀相術로서의 風水地理說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²⁸⁾ 이러한 학설은 도선의 활동기나 당시의 중국과 신라불교계의 시대상황 내지는 도선의 行錄이나 密敎敎理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낭설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과문을 일으키면서 나날이 중시되어 온 도선의 비보사상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에 들어와 점차 유

25) 『列傳』 권35, 「金謂碑」條

26) 加地哲定, 「大衍曆考」, 『密敎文化』 33호

長部和雄, 「一行禪師の研究」, 『密敎文化』 87호

27) 『高麗史』, 「世家」, 恭愍王 16년條. 『列傳』 권40, 「妙請」條. 『列傳』 권130 「裴仲孫」條(이병도, 1980,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28) 상계, 이병도, 논문 29항

교적 풍수도참사상으로 옷을 바꿔 입게 된다. 곧 조선의 태조는 새로운 국가인 조선의 정치이념으로 고려조의 정치이념으로 고려조 지탱의 근간이 되었던 불교 대신에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를 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고려조에서 성행하던 도선의 밀교적 비보사상이 유교적 풍수지리설로 둔갑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곧 『龍飛御天歌』의

九變圖局이란 神誌가 찬술한 圖讖의 별도의 이름이다. (제15장)

현양친도설은 신지와 도선의 도참설에 의한 것이다. (제16장)

란 기사나, 또 『李朝實錄』 태조2년 12월조의

이 곳은 송나라의 胡舜臣이 말하는 水波長生衰敗立室이란 곳이다. 호씨의 책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한 建都에 대한 찬반기사 등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에 들어와 도선의 비보사상이 風水圖讖思想으로 둔갑되고, 또한 도선 대신에 유교의 풍수도참사상가인 神誌²⁹⁾와 송나라의 유학자 胡舜臣이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을 보여 주는 기사라 하겠다. 이러한 둔갑 내지 변화는 정치적 과도기와 시대의 흐름에서 오는 자연적 推移인 것이지만 아무튼 밀교의 만다라택지법에 근원을 둔 도선의 비보사상이 고려의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고려불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 만큼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³⁰⁾

이상 1) 『고려사』와 그것의 밀교적 성격, 2) 『고려대장경』의 조조불사와 밀교의 호국사상, 3) 태조왕건의 건국이념과 밀교보호정책, 4) 도선국사와 밀교의 만다라사상이란 소주제를 중심으로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이란 주제를 고찰해 보았다. 곧 고려불교를 일컬어 秘密佛敎요 儀禮佛敎요 祈禱佛敎로 특징짓는 까닭이 고려불교가 밀교중심의 불교 다시 말해 의례와 기도를 근간으로 하는 밀교였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9) 신지가 어느 때 사람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高麗肅宗 云云”이란 기사 내용으로 보아 肅宗代(1096~1105)나 그 이전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30) 서운길, 「도선비보사상의 연원」, 『불교학보』 제13집
 今西龍, 1944, 「新羅僧 道詵について」, 『高麗史研究』, 近澤書店
 최병현, 「道詵의 생애와 羅末麗初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 11호

Ⅲ. 결 론

이상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이란 주제를

1. 『高麗史』와 그것의 밀교적 성격
2. 『고려대장경』의 雕造佛事와 밀교의 호국사상
3. 태조왕건의 건국이념과 밀교보호정책
4. 道說國師와 密敎의 曼荼羅思想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가>仁王百高座道場(124회), 佛頂尊勝道場(40회), 功德天道場(13회), 消災道場(147회), 文豆婁道場(5회), 四天王道場(2회), 無能勝道場(8회), 摩利支天道場(9회), 金光明經道場(27회), 靈寶道場(11회), 祈攘法席(7회), 般若道場(20회), 帝釋道場(23회), 大日王道場(1회), 眞言法席(1회), 祈雨·止風·龍王道場(23회), 閻滿德加威努王神呪道場(1회), 阿吒波拘神道場(1회), 孔雀明王道場(1회), 藥師道場(3회), 北帝天兵護國道場(1회), 鎮兵法席(4회), 天兵神衆道場(20회), 文殊道場(10회), 灌頂道場(9회) 등 25종 511회에 걸쳐 개설된 『高麗史』의 각종 道場佛事 開設 기사는 護國과 消災를 위한 密敎道場法會로서 고려불교를 祈禱佛敎 儀禮佛敎 秘密佛敎라 정의 내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나>“護法卽是護國”이라는 고려조의 國是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고려대장경』의 雕造佛事는 전후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전국민적인 護國護法의 대작불사로서, 이 가운데는 총 317부의 잡부밀교경전과 善無畏(5부 17권), 金剛智(8부 11권), 不空(109부 152권) 등 唐代的 純密家에 의해 譯出된 밀교경전이 122부 180권, 그리고 天息災(19부 58권), 法天(94부 73권), 法賢(56부 91권), 施護(115부 258권) 등 宋代의 밀교가에 의해 譯出된 밀교경전이 무려 234부 480권이나 수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뒤이어 대각국사 의천(1055~1101)에 의해 조조된 續藏經佛事時에는 『大日經』 『消災經』 등 11經 2論에 대한 密敎經疏가 무려 77부 266권이나 수재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모두가 護國과 消災를 근본으로 하는 密敎經典의 雕造와 刊行에 의해 국가를 鎮護하려했던 고려조의 佛心에서 나온 大作佛事였으며, 『高麗史』에 제시되고 있는 각종 도량불사는 모두가 이들 밀교경전과 의결에 의거하여 開設되었음도 아울러 밝혀두었다.

<다>고려 태조가 후대의 왕들에게 남긴 『訓要十條』 속에 보이는 태조 왕건의 佛敎重視 내지는 密敎禪僧 道說國師에 대한 믿음, 아울러 高麗建國時 왜적을 물리친 공적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고려조의 神印宗의 本山 賢聖寺 창건기사와 이후 고려조의 中心的 護國道場으

로서 발전해 나가는 현성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라>태조왕건에 의해 발탁 등용된 密敎僧 道詵國師는 500년간 지속된 高麗朝로 하여금 佛敎를 國是로 하는 불교국가로 태동케 하는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원동력의 근간으로서 그의 中心思想이기도 했던 山川裨補思想은 밀교의 建立曼茶羅擇地法, 말하자면 一切悉地決定成就法에 그 연원을 둔 것이며, “唐에 들어가 一行和尚의 地理法을 배우고 云云”이란 기사는 도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曼茶羅擇地法의 一人者라 할 唐나라 一行和尚에 假託시킨 허위설임도 아울러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음은 물론 아울러 고려불교를 일컬어 秘密佛敎, 儀禮佛敎, 祈禱佛敎라 하는 그 이유 내지 근거 또한 확실히 알게 되었다.